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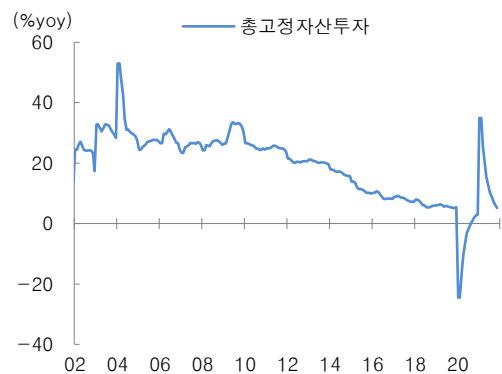
Commodity

Commodity Strategist 김소현
sohyun.kim@daishin.com

중국의 원자재 수급 현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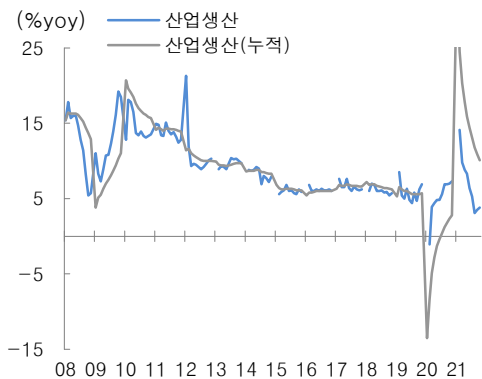
- 2022년 원자재 시장을 가늠하기 위해 이번 자료에서 중국의 원자재 수급 현황을 점검해 보았다. 2021년 원자재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배경이 중국의 재정정책과 선진국 중심의 내수소비 확대에 따른 중국의 수출 증대였기 때문이다.
- 지난주 중국 경제실물 지표가 발표된 이후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졌다. 11월 중국 소매판매와 1~11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3.9%, 5.2% 증가해 전월치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반면, 11월 중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하며 전월치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내수 부진에도 수출 증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11월 중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 늘어났다. 반면, 중국 원자재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원자재 수입 지표 결과는 양호했다. 중국 석탄, 천연가스 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98.1%, 16.9% 증가한 반면 원유 수입량은 -7.9% 감소했다. 중국 철광석, 구리 광석은 각각 6.9%, 19.5% 증가한 반면 비가공구리 수입량은 -9.1% 감소했다.
- 2022년 중국의 원유 수요가 줄어든 가능성 높다고 판단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환경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때문이다. 보통 겨울철 시즌에 중국 정유업체들은 설 연휴 이동 수요를 대비해 원유를 수입해 재고 축적을 한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이동제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닝보 지역의 섯다운으로 Sinopec의 최대 정제공장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2월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도 하나의 변수이다. 중국 정부는 올림픽 기간에 푸른 하늘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제강, 정유 등 원자재 관련 산업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정유업체들은 베이징 올림픽 시기에 도착하는 원유 스팟 거래에 비활동적이며, 허베이와 산둥지역의 정유시설 가동률이 통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반면, 2022년 중국 비철금속 수요 증가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헝다 디폴트 사태로 부동산 침체 압력이 커짐에 따라 최근 비철금속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 부동산 시장 부진 소식은 니켈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소속 연구기관은 중국의 2022년 철강 수요가 전년대비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니켈 수요의 80% 가량이 철강향 수요이다. 베이징 올림픽 및 환경규제로 비철금속 수급 영향도 지속될 수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중국 알루미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해 3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을 하회했다. 또한, 중국 내 아연 제련소들의 경우에도 생산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북부 지역의 아연 도금업체들도 환경 보호 조치 및 건설 프로젝트 지연으로 생산을 줄이고 있다. 다만, 최근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경기 둔화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언급은 비철금속 가격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판단한다.

그림 1. 중국 고정자산투자 감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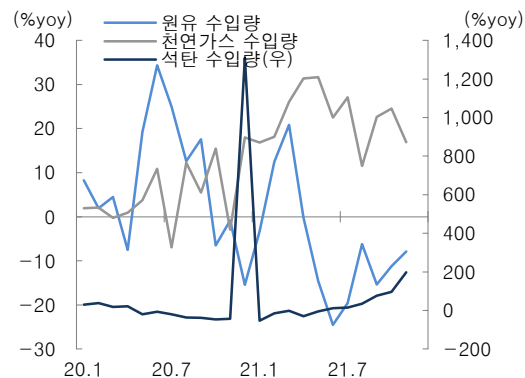
자료: NB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중국 11월 산업생산 결과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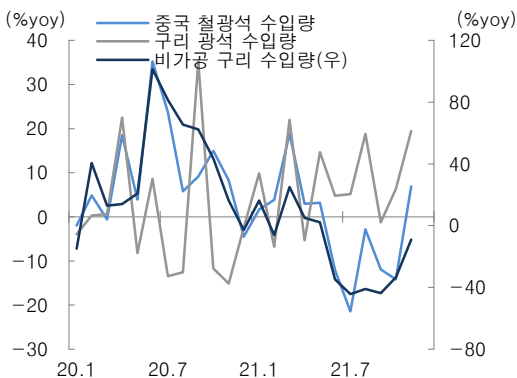
자료: NB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중국 에너지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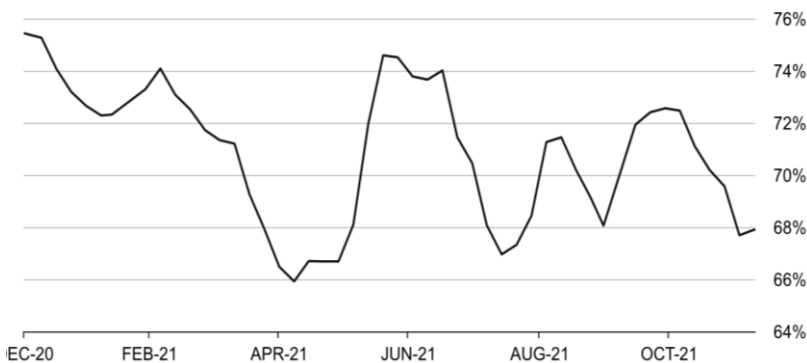
자료: 중국 관세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중국 철광석 및 구리 수입량 추이



자료: 중국 관세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중국 산동 지방의 독립 정유업체들의 정유시설 가동률 하락



자료: SCI99,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김소현)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